



## 왜 엄마만 찾는 걸까?



엄마! 엄마! 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엄마” 라는 소리는 아마도 내 평생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아닐까 싶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분명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한국으로 온 이후부터인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부터인가? 이상하게 유독 엄마만 찾는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항상 아빠도 집에 있는데 말이다.

게다가 남편은 자타가 공인하는 꽤나 가정적인 남자이다. 애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목욕, 이발, 손톱 자르기도 남편이 도맡아 했었고 집에 있는 날은 나보다 훨씬 요리도 많이 한다. 남편이 끼니 준비에 있어서 술선수 범하기도 하고 손맛도 나보다 좋은 편이라 끼니때가 되어도 내가 설부터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남편이 요리를 하면 내가 재료 준비를 거들거나 설거지를 맡는 식으로 나름 균형 있게 분담하고 있다. 남편은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축구, 야구 등을 같이 즐기는 일은 없지만 보드게임이나 축구 게임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일정 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남편은 일 년에 서너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가고 주말에는 꼭 외식을 하거나 잠시라도 바람 쐬러 나가려고 노력하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자상하고 가정적인 아빠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쉬울 때 나만 찾는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엄마!”, 화장실 뒤처리 필요할 때도 “엄마!”, 코피가 나도 “엄마!”,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엄마!”, 준비물을 못 찾아도 “엄마!”, 숙제 하다가 모르는 게 나와도 “엄마!”, 약을 먹을 때도 “엄마!” 일단 엄마부터 부르고 본다. 물론 토끼같이 귀여운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고 필요로 하면 사랑스러울 때도 많다. 나도 몸과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 있을 때 아이들이 나를 찾아오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가까이 웃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채워주고자 한다. 하지만 나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시

도 때도 없이 계속 나를 찾아대면 정말 신경과민이 올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심지어 엄마는 잔뜩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빠는 방에 누워 폰을 보고 있는데도 굳이 엄마를 찾아오니 신경질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

대체 왜 그런 걸까? 왜 온 식구들이 나만 찾는 걸까? 왜 다 나한테만 물어보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만큼 식구 한 명 한 명 집안 구석구석을 두루두루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남편은 아이들 담임 선생님 이름이며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알지 못할뿐더러 물어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줘도 다음날이면 잊어버린다. 아이들 발 사이즈, 요즘 교우 관계, 태권도 수업 시간, 학습지 선생님 연락처, 속옷 양말 구분 방법, 친구네 엄마 카톡, 오늘 급식 메뉴,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시끌쭌한 이야기들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아이들이 아빠에게 물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고 이야기해줘 봤자 기억도 못한다. 그러는 사이 서서히 틈이 생기고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한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남편이 이 정도이니 다른 집은 오죽할까? “우리 아이는 엄마만 좋아하고 엄마만 찾아요”라며 조금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육아에 한발 물러서 있는 아빠들이 수도룩하다. 아빠는 돈 버는 사람, 그래서 육아와 가사는 엄마의 몫이라고 당연한 듯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주변 아이들에게 물어보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빠 외벌이 + 엄마 전업 주부 상황을 “아빠는 돈 버느라 매일 회사 다니고 엄마는 집에서 놀아요” 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아직도 이런 쌍팔년도 사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자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육아가 힘든 이유는 육아 일상의 반복이 주는 피로감 때문일 것이다. 제 아무리

모성애가 투철한 엄마일지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에 가끔은 지칠 수밖에 없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전업맘은 물론이며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워킹맘들은 정말 모두 어메이징한 존재들이다. 내 한 몸 챙기는 것도 버겁고 힘들었던 미혼이었을 때의 나를 생각하면 지금의 나는 정말 오만가지를 챙기고 돌보며 살고 있다. 딱 막힌 사회가 아무리 엄마들을 그저 몰상식한 아줌마 취급하며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무시해도 엄마들은 분명 온 힘을 다해 내 몸과 마음을 최대로 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남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못하는 것들을 해내고 있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내 남편을 비롯해 아이를 키우는 아빠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육아, 같이 합시다!” 한걸음만 가까이 다가가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육아에 참여한다면 온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다. ‘돈 버느라 바빠서, 남자는 원래 그런 거 못해서, 남들도 다 그런데’ 같은 옛날 아버지 식의 변명은 이제 좀 아니지 않나? 옛날 아버지들의 쓸쓸한 말년을 목격한 우리는 달려져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타고나서 이려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당연한 듯이 여성에게만 육아의 의무를 씌우는 것부터가 문제다. “여성은 모성이라는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등의 문구들도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는 남성이 아닌 여성의 역할이라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모성과 부성을 구분하지 말고 다시 못 올 아이들의 찬란한 시기에 아빠도 함께 해주면 어떨까? 장담하건대 그럼 분명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빠를 골고루 찾게 되고 엄마의 한숨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엘바인 및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b>풀리톤 단층 하우스</b> 방 3 화 3 1,562sf 대지 6,500sf <b>\$550,000</b>	<b>요바린다 타운홈/콘도</b> 방 3 화 3 2019년생 1,669sf 3층구조 <b>\$730,000</b>	<b>부에나팍 단층 하우스</b> 방 3, 화 2 1,505sf 대지 6,320sf <b>\$690,000</b>	<b>풀리톤 타운홈/콘도</b> 방 1 화 1 700sf <b>\$290,000</b>
<b>풀리톤 단층 하우스</b> 방 3 화 1 1,100sf 넓은 대지 6,100sf <b>\$590,000</b>	<b>부에나팍 단층 하우스</b> 방 3 화 2 1,540 sf 대지 6,000sf 완전 리모델링 한집 turn key <b>\$690,000</b>	<b>요바린다 단층 하우스</b> 방 2 화 2 1,056sf 대지 5,000sf 1984년생 <b>\$540,000</b>	<b>부에나팍 단층 하우스</b> 방 3 화 3 1,496sf 대지 5,150sf 한인 상권 가까운 곳 위치 <b>\$590,000</b>
<b>풀리톤 단층 하우스</b> 방 3 화 2 1,583sf 대지 6,000sf 은행교회 아리랑마켓 가까운 곳 <b>\$590,000</b>	<b>풀리톤 단층 하우스</b> 방 3 화 2 1,537sf 넓은 대지 7,000sf 좋은 학교 <b>\$610,000</b>	<b>풀리톤 단층 하우스</b> 전체 리모델 방 5 화 2 1,665sf 대지 7,500sf 새 부엌, 새 appliances move in ready <b>\$690,000</b>	<b>풀리톤 타운홈/콘도</b> 방 2 화 3 1,362sf 완전 리모델링한집 트로이고등학교 도보거리 <b>\$540,000</b>
<b>엘바인 타운홈/콘도</b> 방 2 화 3 새 마루 새페인트 1,460sf West Irvine <b>\$650,000</b>	<b>엘바인 콘도</b> 2006년생 1,052sf 방 2 화 2 일층 위치 fully furnished <b>\$520,000</b>	<b>엘바인 콘도</b> 방 3 화 4 1,590sf 2020년생 포돌라 Brisa <b>\$728,000</b>	<b>엘바인 타운홈</b> 2002년생 방 3 화3 1868sf 낮은 HOA 게이트 단지 <b>\$789,000</b>
<b>*부에나팍 새집 분양</b> 3층 구조 *교통과 위치 좋은 곳 1. 방 2 화 2.5 1,250sf <b>\$500,000</b> 부터 2. 방 3 화 3 1,500sf <b>\$550,000</b> 부터	<b>*브레아 새집 분양</b> 3층 구조 2,253sf 방 3개 부터 방 5개까지 택트인 오픈 플로워 플랜* 학교 좋은 지역 <b>\$690,000~</b>	<b>*위티어 새집 분양</b> 2층 또는 3층 방1~방4 구조 900sf 부터 1,950sf까지 최신 시설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수영장 등등)	<b>라미라다 시니어 단지</b> 방 1,2,3 (55세 이상) 24시간 가드 상주 넓은 게이트 단지 한국 마켓 가까운 곳 위치 <b>\$290,000~</b>

###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